

假裝된 죽음과 고통의 기억*

- 李明五의 <自挽> 十二首

임준철**

<차례>

1. 서론
2. 李明五의 삶과 <自挽> 十二首
3. 유형적 특성: 假裝된 죽음
4. 창작의식: 고통의 기억
5.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필자가 한국 한문학 자료 중 自挽詩 작품들을 수집·역주하는 과정에서 눈에 띈 특징적 작품인 李明五(1750~1836)의 <自挽> 十二首를 소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명오의 <자만> 십이수는 자만시의 시적 전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고통의 기억을 세상에 각인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다. 假裝된 죽음의 서사를 통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庶系로서 온당하게 평가받지 못한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하소연하고 있다. 또, 가까이 교유했던 인물들의 비극적 죽음을 자신의 죽음 안으로 끌어들이며 개인을 넘어 집단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른 자만시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국면에 도달하고 있다.

이명오의 작품이 갖는 자만시로서의 특성은 최장 연작시라는 점, 특정한 사건에 대한 기억을 위주로 작성되었다는 점, 먼저 세상을 뜬 인물들에 대한 정신적 연대를 담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자만시를 남긴 주요 작가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들이 그러하듯이 별도의 自傳的 작품을 남기고 있어, 자만시 이해를 돕고 있다.

문학의 계보는 기원을 중심으로 고정불변하는 체계가 아니라 항상 현재 시점에서 사후적으로 배열되고 구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명오의 <自挽> 十二首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만시의 시적 계보를 새롭게 구성해낸 특징적 작품으로 기억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명오의 <自挽> 十二首로 인해 조선시대 자만시는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표현의 매체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핵심어 : 自挽詩, 李明五, 죽음, 기억, 유형적 특성, 창작의식

1. 서론

自挽詩는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독특한 유형의 挽詩(輓詩)이다. 만시가 실제 장례의식에 수반된 것이란 점에서, 또 상당부분 청탁에 의해 타율적으로 지어진다는 점에서, 자만시는 일반 만시 양식과 큰 차별성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만시는 죽은 자의 일생을 되돌아보며 추모한다는 점에서 산문의 傳과 통하는 면이 있다. 그런데, 자만시의 경우는 그것을 자기 스스로 짓는다는 점에서 自傳的 요소가 두드러지게 된다. 자만시를 쓸 때 시인은 자신의 죽음을 가정하고 죽은 자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방식을 취한다. 자만시의 이런 특성들은 자연 죽음을 통해 삶을 조명해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며, 특히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시인의 결연한 자의식을 드러내게 한다. 자만시의 이런 특수성은 매우 의도적이고 허구적인 자기표현의 방식이란 점에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¹⁾

1) 필자는 선행 연구를 통해 자만시의 시적 계보와 양식적 특성 및 자만시의 유형적 특성에 관해서 논의한 바 있다. 이상의 자만시 규정은 선행 연구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시오.

이 글은 필자가 한국 한문학 자료 중 自挽詩 작품들을 수집·역주하는 과정에서 눈에 띈 특징적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을 살다 간 李明五(1750~1836)의 <自挽> 十二首가 그것이다. 이명오는 그 동안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던 작가 중의 하나다. 서얼 시인으로 유명한 아버지 李鳳煥의 아들이자 언급되거나, 18~19세기 시단의 중요 시인들과 교유했던 인물 중의 하나로서 부수적으로 거론된 정도였다. 하지만, 이명오는 아버지 李鳳煥, 아들 李晩用과 함께 三代가 藝苑에 詩名을 날린 뛰어난 시인이었다. 그는 現傳 자료 중 自挽을 주제로 한 최장 연작시인 <自挽> 十二首를 남기고 있다. 이 작품은 이명오의 삶과 시세계를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작품이면서, 동시에 자만시로서도 상당한 성취를 거둔 경우라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자만시의 계보 속에서 그가 남긴 <自挽> 十二首를 검토함으로써, 이명오의 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2. 李明五의 삶과 <自挽> 十二首

李明五의 삶에 대해서는 현전 자료의 한계로 인해 그 전모를 충분히 알기 어렵다. 다행히 최근 시적 교유를 중심으로 그의 삶 일부를 검토한 글이 제출된 바 있다.²⁾ 이 글에서는 문집에 실린 序跋 등 관련 자료와 기

줄 고, 「自挽詩의 詩的 系譜와 조선전기의 自挽詩」, 『고전문학연구』 제31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319~356쪽.

——, 「조선시대 自挽詩의 類型的 특성」, 『어문연구』 제146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375~400쪽.

2) 이현일, 「李鳳煥 三代의 悲願」, 『문헌과 해석』 제20호, 문헌과 해석사, 2002.09, 26~47쪽.

——, 「泊翁 李明五 시 연구(1)-初期詩를 중심으로」, 『한국한시연구』 제19집, 한국한시학회, 2011.10, 83~118쪽.

——, 「청년 이명오의 슬픔」, 『문헌과 해석』 제54호, 문헌과 해석사, 2011, 191~230쪽.

준 연구를 바탕으로 이명오의 자만시 이해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傳記的 검토를 대신하고자 한다.

李明五(1750~1836)의 자는 士緯, 호는 泊翁·書娛生이고, 본관은 全州이다. 그의 先代론 穆陵盛世의 걸출한 시인 중의 한 사람인 李春英이 있다. 이명오의 집안은 이춘영의 서자 壽長의 후손으로, 아버지 李鳳煥(1710~1770)은 椒林體 한시의 창시자로 일컬어져 왔다. 그의 시가 구상은 날카롭지만 기교가 각박·첨예한 데로 흘러, 입에 올리면 “산초가 혀를 얼얼하게 하는 것 같은 椒粒辣舌” 데서 붙여진 명칭이다. 庶孽의 ‘孽’이란 음이 혀가 얼얼하다고 할 때와 음이 같다는 점에서 산초를 의미하는 ‘椒’자를 쓴 것이라 한다. 李奎象은 『并世才彥錄』 「文苑錄」에서 이봉환의 초립체 시풍을 설명하며, 서열의 억울한 기운이 괴벽하고 기괴한 시를 쓰게 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³⁾ 이런 시적 특성은 아들인 이명오와 손자 李晩用(1792~1863)에까지 이어져 삼대가 모두 시인으로 이름을 날렸다. 鄭元容은 이들 삼대가 시로서 세상에 유명하여 당대 예원의 거장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고 적은 바 있다.⁴⁾

이명오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버지 이봉환의 庚寅年(1770) 獄死라고 할 수 있다. 집안의 비극은 壬午禍變(1762)으로부터 비롯한다. 莊獻世子(思悼世子)로부터 知遇를 받았던 이봉환은 세자의 비참한 죽음 이후 스스로 벼슬에서 물러나 ‘西汀’이란 호를 ‘雨念齋’라고 치기에 이른다. ‘雨念齋’란 호는 朱熹의 “평생 비바람 치는 밤이면, 누워 명예와 절조 지키기 어려움 생각했노라. 平生風雨夜, 臥念名節難.”란 시구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⁵⁾ 庚寅年 평소 이봉환과 교유가 있던 崔益南은 영

이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상의 글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음을 밝혀둔다.

3) 李奎象, 『18세기 조선 인물지(并世才彥錄)』,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분과 옮김, 창작과 비평사, 1997, 97~99면·269~270쪽.

4) 鄭元容, <泊翁詩鈔序>, 『泊翁詩鈔』, 韓國文集叢刊 續102, 한국고전번역원, 2010, 4~5쪽.

5) 李晩用, <與黃山金公(迨根)書>, 『東槿集』 卷四, 韓國文集叢刊 303, 민족문화추진회, 2003, 577쪽. “生之先祖雨念公, 以文章名於英廟朝者, 四十餘年, 晩受知遇於莊獻世子, 世子每遣中使存問, 紙筆墨及扇香諸種, 時時賜與, 蓋亶出於好文之眷眷也. 先祖

의정 金致仁이 思悼世子の 죽음에 죄가 큼을 논하고, 세손으로 하여금 사도세자의 墓祠에 참배하게 할 것을 상소하였다. 이 일로 최익남은 대신들의 맹렬한 탄핵과 영조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이봉환은 최익남의 상소에 연루되어, 영조의 親鞫을 받게 된다. 영조는 이봉환이 끝내 自服하지 않자 사형에 처하려고 하다가 옥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을 일단 유예한다. 하지만, 이봉환은 친국을 받은 다음 날 세상을 뜨고 만다.⁶⁾

이명오를 포함한 오형제 역시 아버지의 일에 연좌되어 옥에서 모진 고초를 겪다가 3년 간 유배살이를 하게 된다. 이때 막내 동생 尙五의 나이는 겨우 열 살이었다. 이때 겪은 고초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만용은 아버지 앞에서 庚寅이란 두 글자를 입에 담을 수 없었다고 적고 있다.⁷⁾ 이때의 일들은 이명오가 1776년에 지은 550구의 장편고시 <漫述>(卷一, 17~20면)에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이명오의 호는 泊翁이지만, 가까운 친구들은 그를 또 다른 호인 書娛生으로 불렀고, 그의 서재를 書娛軒이라 불렀다.⁸⁾ 책을 즐기는 사람이란 호의 의미대로 이명오는 藏書家인 동시에 愛書家이기도 했다. 이명오는 책

由進士, 仕爲陽智縣監, 當是時, 奸臣構世子, 先祖知將有變, 解印而歸. 既而復除廣興倉主簿, 明年壬午, 世子竟遇禍, 先祖自劾而退, 不復仕宦. 取朱子詩‘平生風雨夜, 臥念名節難’之語, 改號西汀曰雨念齋.”

이만용은 편지에서 “平生風雨夜, 臥念名節難.”를 朱熹의 시구라 했지만 착오가 있는 듯하다. 실제 이 시구는 宋代 張栻의 시 <送楊廷芳> 三首의 其三 “平生風雨夕, 每念名節難”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이 편지는 이만용이 당시의 실권자인 김유근에게 아버지 이봉환을 표창하고, 그 자손이 벼슬에 서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한 것이다. 편지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상세하게 검토된 바 있다. 이현일, 「李鳳煥 三代의 悲願」, 26~47쪽.

6) 『영조실록』 115권, 46년 11월 25일(丁卯), 1번째 기사.

7) 李晚用, <祭仲父石間公文>, 『東樊集』 卷二, 韓國文集叢刊 303, 민족문화추진회, 2003, 581쪽. “每說我王考時事, 輒嗚悵不忍言, 家人子姪輩, 亦嘗聞其緒餘, 而傷痛在心, 未敢言庚寅二字於家君與公之前.”

8) 書娛軒에 관해서는 다음 시가 참고 된다. 李明五, 『泊翁詩鈔』, 卷四, 「賦雪, 次道泉李注書(章臺韻)」, 韓國文集叢刊 續102, 한국고전번역원, 2010, 59~60쪽. 이 시의 小引 말미에 “偶題於清水洞書娛軒”이라고 해서 서오현이 청수동(지금의 경기도 金浦 淸수동)에 있던 서재이름임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 인용한 『泊翁詩鈔』의 텍스트는 한국고전번역원의 영인본을 그 대본으로 한 것이다.

에 대한 관심을 <藏書>, <散書>, <借書>, <送書>, <看書>(이상 卷一, 13면) 등의 시로도 표현하였다. 그는 “勢道 있는 자는 빈손으로도 얻는 것이고, 어리석은 이는 한 푼에도 보려하지 않는 게 勢客還將空手取, 癡僮不直一錢看.”(<散書>) 책이라고 했다. 그래서 책을 소유하기란 참으로 어렵고, 또 소유했다 하더라도 지키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명오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책이 일만 권이나 되었는데, 경인년의 일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었을 때 장서 역시 상당부분 훼손되었다.

이명오의 시집 『泊翁詩鈔』는 사후 아들 이만용에 의해 9卷 4冊으로 간행된다. 아들 이만용에 따르면 이명오는 만 수가 넘는 시를 지었다고 하는데,⁹⁾ 金正禧 같은 이는 삼만 수가 넘는다고도 했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9권 4책의 문집만을 남긴 데에는 아버지 이봉환의 문집 분량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이명오 자신의 각별한 당부가 있었다.¹¹⁾ <自挽> 十二首는 卷六에 실려 있는데, 문집의 편차로 볼 때 卷六에 수록된 작품들은 1814년부터 1815년 사이에 지어진 시로 추정된다.¹²⁾ 하지만, <자만> 其八의 “여든 되도록 세상 갖든지 오래니, 많은 인연으로부터 해탈함이

9) 李晚用, <泊翁詩鈔跋>, 『泊翁詩鈔』, 178쪽, “屏居金浦墓廬, 愁居懾處, 謝去一切世事, 益肆力於經史百家之書, 撮其精英神髓, 一以發之于詩, 屬草稿者過萬首矣.”

10) 金正禧, 『阮堂全集』, 卷十, <寄泊翁壽朝 四首> 其二, 韓國文集叢刊 301, 민족문화추진회, 2003, 180쪽, “大年恰到放翁時, 萬首詩還三倍之. 天遣翁來知有意, 使人解讀謫仙詩.” 이 시 承句의 주석에 “翁詩已過三萬首”라고 하여 이명오가 삼만 수가 넘는 시를 썼다고 설명하고 있다.

11) 李晚用, <泊翁詩鈔跋>, 『泊翁詩鈔』, 178쪽, “病中執不肖孤之手曰, ‘先人詩文, 以正廟刪定本八梓, 爲四卷而止, 吾詩汝其淘削, 無過三二卷藏于家, 亦勿廣布, 小子流涕而對, 如尙在耳.’”

12) 이현일, 「泊翁 李明五 시 연구(1)-初期詩를 중심으로」, 91쪽. 이현일의 보고에 따르면, 『泊翁詩鈔』에는 25세부터 여든 다섯 살까지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卷一에는 甲午年(1774)부터 己亥年(1779) 이후까지, 卷二에는 戊申年(1788) 안팎부터 辛亥年(1791) 이전까지, 卷三에는 辛亥年(1791) 가을부터 대략 癸亥年(1803) 봄까지, 卷四에는 癸亥年(1803) 즈음부터 辛未年(1811) 정월까지, 卷五에는 辛未年(1811)부터 癸酉年(1813) 즈음까지, 卷六에는 甲戌年(1814) 즈음부터 乙亥年(1815) 즈음까지, 卷七에는 丙子年(1816) 4월부터 乙酉年(1825) 여름까지, 卷八에는 甲申年(1824)부터 己丑年(1829) 즈음까지, 卷九에는 甲午年(1834)까지의 시가 실려 있다고 한다.

기이하네. 八耋居停久, 衆緣解脫奇.”란 구절을 볼 때, 이 시는 여든 무렵에 창작된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이명오의 자만시는 그의 여든 일곱 해의 삶이 저물어가던 어느 시점에 지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유형적 특성: 假裝된 죽음

이명오의 <自挽> 十二首는 現傳 자만시 중 가장 긴 연작시이다. 자만시가 지닌 主題的 일탈성이나 예외성을 감안할 때, 자만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시인의 처지나 입장이 매우 특별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자만시를 짓더라도 한 두수 정도로 간략하게 지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현전 자료 중 自挽을 주제로 세 수 이상의 작품을 남긴 경우는 陶淵明의 자만시 <擬挽歌辭> 三首를 계승한 작품들이나, 16세기 盧守愼, 17세기 朴玠衢와 李言直의 작품 정도 밖에 발견되지 않는다. 그만큼 자만시 창작이란 자신의 죽음이란 금기를 깨는 불경한 일탈이었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이런 자만시를 열두 수나 쓴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명오는 조선전기 南孝溫이나 조선중기 崔奇南이 陶淵明의 자만시를 계승하기 위해 古詩 형식을 선택한 것과는 달리, 五言律詩란 형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조선후기 자만시가 挽詩의 短型化에 발맞추어 絶句·律詩 형식을 많이 선택한 것과는 무관하지 않은 결과일 것이다.

앞서 글에서 필자는 自挽詩가 자신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에 각인시키려는 욕구로부터 기인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¹³⁾ 그런 측면에서 볼 때 自挽詩에 그려진 나의 죽음이란 사실상 자아를 표현하는 일이며,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시인의 自意識과 긴밀하게 관련될 문제이

13) 줄고, 「조선시대 自挽詩의 類型的 특성」, 322~323쪽.

다. 그런데, 自挽詩의 죽음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작가의 想像力이 요구되며, 이것이 작품의 표현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挽詩가 喪葬禮와 관련된 문학양식인 만큼, 自挽詩 역시 喪葬禮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自挽詩의 해명에는 허구화의 방식과 상장례의 假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자만시의 내용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⁴⁾

- ① 죽음을 받아들이는 態度
- ② 自我表現
- ③ 虛構性
- ④ 喪葬禮

앞의 두 가지가 자만시에 담긴 의식세계를 분석하는 기준이 된다면, 뒤의 두 가지는 자만시의 表現方式과 作品構造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기준이 된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 <自挽> 十二首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凡例

* 번호는 이명오의 <自挽> 十二首 시의 순서임

** 자만시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는 번호로만 표시하기로 한다. ① 죽음을 받아들이는 態度, ② 自我表現, ③ 虛構性, ④ 喪葬禮

*** 상장례 과정은 죽음-입관-장례-매장 중 해당 단계를 표시하고, 그 외의 내용일 경우엔 괄호 안에 표시하기로 한다.

순번	구성요소	상장례 과정	주요 내용
1	① ③ ④	죽음	요행히 장수할 수 있었음,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적 회고, 내 영구의 줄은 누가 잡아줄까?
2	① ③ ④	죽음	죽음의 정경, 썩어가는 자신의 시신, 매장 후의 정경

14) 앞의 논문, 377~380쪽.

3	① ② ③ ④	장례	장례에 대한 바람, 자신이 좋아했던 것은 오직 책뿐임, 저승으로 가더라도 지각은 있음
4	① ② ③ ④	장례	장례의 스산한 정경, 내 죽음을 슬퍼하는 가족들, 경인년 선친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통한
5	① ② ③ ④	(사후세계)	자유로운 사후세계와 답답했던 현실세계의 대비, 고래와 학을 탄 자아형상의 등장, 庶系로서 현실 속에서 겪은 괴로움에 대한 회한
6	② ③ ④	入棺	자신의 죽음 앞에 곡하는 사람들의 정경, 연습하는 과정, 신분의 한계와 곤궁 속에서도 지켜온 자존심, 벼들은 이미 모두 세상을 떠났음
7	① ③ ④	(사후세계)	부모님 구존하셨을 때에 대한 회상, 사후세계의 끝없는 즐거움
8	① ③ ④	죽음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죽음, 자식에 대한 걱정
9	① ③ ④	죽음	아내에 대한 그리움, 자식에게 책을 전함
10	① ② ③ ④	죽음 (자신의 삶 회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 부정한 현실에 어떠한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음, 항상 험겁기만 했던 자신의 삶에 대한 회고
11	① ② ③ ④	매장	문장은 찢지 않기에 문묵으로 대신 피를 흘림, 다음 생에도 바로 잡히기 어려운 일이 있음
12	① ② ③ ④	(사후세계)	洪樂任과 盧毓에 대한 그리움, 남인 李家煥에 대한 언급, 저승에서 만날 날을 기약함

이명오 <자만> 십이수는 표를 통해 제시된 것처럼 상장례의 과정, 사후 시신의 모습, 죽음에 대한 달관의 자세, 사후세계의 假設, 자아형상화, 자신이 겪은 험난한 현실에 대한 회고, 먼저 세상을 뜬 선배들과의 만남 기약 등 매우 다채로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만시의 濫觴이라 할 陶淵明의 <擬挽歌辭>는 죽음부터 入棺까지(첫 번째 수), 장례의식과 운구(두 번째 수), 묘지에서의 매장과 매장 이후의 일(세 번째 수)을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다. 대체로 죽음으로부터 매장까지 상장례와 관련된 일체의 과정이 線條的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명오의 <자만>은 죽음에서 매장에 이르는 과정을 선조적으로 밝기보다는, 의도적으로 그 과정을 도치시키고 이질적 내용을 담아 시인의 내밀한 의중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간략히 정리하자면 其一·其六·其十一이 자만시로서 의당 갖추어야 할 상장례란 구성요소에 해당한다면, 其二·其三·其四·其八·其九·其十은 지난 삶에 대한 회고를, 其五·其七·其十二는 사후의 문제를 담고 있다.

자만시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조선시대 자만시를 분류해 보면 크게 세 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앞서 필자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중심으로 ‘죽음 앞의 孤獨’, ‘超越的 죽음’, 그리고 ‘假裝된 죽음’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¹⁵⁾

‘죽음 앞의 孤獨’이라 명명된 첫 번째 유형은 네 가지 구성요소 중 허구성과 상장례가 없거나 현저히 약화·축소되어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 유형의 작품들은 죽음을 목전에 두었거나 죽음이 닥쳐오리라 예상하고 지은 경우가 많아서 허구적 장치가 생략되어 있다. 또, 죽음을 앞에 둔 자아의 결연한 의식이 주로 강조되는 까닭에 상장례 관련 내용이 생략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종류의 작품들은 대체로 臨終詩 내지 絕命辭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超越的 죽음’이라 명명된 두 번째 유형에서는 네 가지 구성요소 중 자아표현의 부분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들 작품은 죽음을 달관하는 의식을 넘어서 죽음에 대한 초월적 의식을 보여주지만, 초월적 시·공간은 대체로 현실사회의 왜소함과 부정함의 반면으로서 기능한다. 허구성이 두드러진 자아표현 중심의 자만시라고 할 수 있다.

‘假裝된 죽음’이라 명명된 세 번째 유형은 네 가지 구성요소가 고루 갖추어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상장례의 묘사와 허구성이 강화되어 나타난다. 쓸쓸한 상장례의 정경은 자신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수사적 장치로 가능하며, 참혹한 시신에 대한 묘사는 우리가 아니라 ‘나’의 죽음을 부각한 특징적 사례에 해당한다. 이 유형에선 사후세계의 상상과 같은 시인의 능수능란한 죽음의 演技가 발휘되기도 한다. 죽음을 가정하는 것은 자만시

15) 앞의 논문, 396쪽.

일반의 특성이지만, 이 유형은 거짓 죽음의 서사가 매우 의도적이고 구체적이란 점에서 특징적이다. ‘假裝된 죽음’ 유형은 기타 자전적 글쓰기와 변별되는 본격적 자만시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발굴된 조선시대 자만시의 유형별 작품수 분포를 보면, 죽음에 대한 달관적 시들을 포함한 ‘超越的 죽음’ 유형의 자만시가 제일 많고, ‘죽음 앞의 孤獨’ 유형과 같은 臨終詩 성격의 자만시가 그 뒤를 잇는다. ‘假裝된 죽음’ 유형의 자만시는 상대적으로 매우 드문 편이다. 동아시아 자만시의 기원이라 할 陶淵明의 <擬挽歌辭>나, 후대 자만시에 큰 영향을 미친 宋代 秦觀의 <自作挽詞>는 모두 ‘假裝된 죽음’ 유형에 속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자만시에서 이런 유형의 자만시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조선시대 문인들이 ‘나의 죽음’을 연기하고 형상화하는 데 소극적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명오의 <자만> 십이수는 자만시의 시적 계보에서 개별성과 함께 독특한 위상을 지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자만시 작가 대부분이 정작 ‘나의 죽음’이란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나’의 문제를 다루는 데 그친 것과는 변별되는 국면이기 때문이다. 이명오 역시 이런 자만시의 시적 전통을 명징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작품 안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이 감지된다.

이명오의 자만시에 나타난 특징적 국면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땅강아지 개미는 두개골을 뚫고,¹⁶⁾
 까마귀 솔개는 내장을 쪼는구나.¹⁷⁾
 대나무 이으면 새 쫓아낼 수 있고,
 石棺에 넣는다면 벌레 구멍 막을 수 있을 텐데.
 지혜와 용기 운이 모두 다했고,
 우매하고 어리석어 피하는 일 불길했지.
 염복 입혀 대충 묻으니,

16) 南孝溫, <自挽四章>, 其一, “螻蟻入我口, 蠅螞嘍我肉.”

17) 李白, <戰城南>, “烏鳶啄人腸, 銜飛上挂枯樹枝.”

백초는 날로 무성해져 가누나.
 螻蟻鑽頭骨, 烏鳶啄腹腸.
 逐飛竹可續, 防穴石堪藏.
 智勇運皆盡, 痴愚計不臧.
 珠襦與藁葬, 白草日茫茫.¹⁸⁾

첫 두 구는 조선전기 南孝溫(1454~1492)의 <自挽四章, 上估畢齋先生>(『秋江集』卷一, 30면)을 연상시킨다. 남효온의 시는 현재 전하는 한국 한시 중 최초로 ‘自挽’이란 제목을 단 작품이다. 남효온은 첫 번째 수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다.

땅강아지 개미들 내 입에 들어오고,
 파리 모기떼 내 살 물어뜯네.
 새로 끈 새끼로 내 허리 졸라매고,
 헤진 거적으로 내 배 덮는구나.
 螻蟻入我口, 蠅螞嘍我肉.
 新繩束我腰, 弊苫蓋我腹.

‘螻蟻’구는 西晉 陸機 「挽歌詩三首」 其二의 “땅강아지 개미 너희를 어찌 원망하라 螻蟻爾何怨”를 연상시키지만, 주검의 참혹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이전의 挽詩 혹은 自挽詩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이다. 참혹한 주검의 모습은 남효온의 두 번째 시에서도 발견된다. “아버님 무덤가는 길로 내 영구도 보내니, 얼어붙은 시신은 나무토막 같아라 相送南陽阡, 凍屍直如木”¹⁹⁾ 같은 예가 그렇다. 이런 표현들은 죽음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시인의 삶에 대한 열망의 강도를 짐작케 한다. 또한, 삶과 죽음의 현격한 격차는 죽음을 통해 삶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더욱 효과적인 방식이 된

18) 『泊翁詩鈔』, 卷六, <自挽> 其二, 112쪽.

19) 班固 撰, 『漢書』 卷九十二, 「游俠列傳」 第六十二, “涉[原涉]父爲南陽太守, 父死, 涉大治, 起塚舍, 買地開道, 立表署, 曰南陽阡.”

다.

그런데, 인용 구절들은 한편으로 중세 서구의 ‘마카브르 macabre’를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다. 15세기, 특히 16세기에 들어 서구인들은 죽음에 대한 虛構的 觀念 대신 實際의 죽음에, 곧 악취를 풍기며 구더기에 뜯어 먹히는 참혹한 시체의 모습에 부쩍 관심을 가지게 된다. 죽음에 대한 인간의 태도 변화를 묘지명·유언장·도상 등을 통해 접근한 아리에스(Ariès)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죽음에서 ‘나의 죽음’으로 관심이 옮겨가는 증거라고 한다.²⁰⁾ 비록 남효온이나 이명오 시만의 예외적 사례이기는 하나, 시신훼손에 대한 묘사는 우리가 아니라 ‘나의 죽음’을 부각한 특징적 사례로서 주목합직하다. 이를 통해 이명오는 ‘나의 죽음’이란 개별성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후술할 이 시의 창작의도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의 내용은 매우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명오의 <자만> 시에 등장하는 현실과 대비되는 사후세계 역시 남효온의 <自挽四章> 및 중인문학 초창기 ‘六家’중의 한 사람인 崔奇南(1586~1669)의 <和陶靖節輓詩三章>을 잇고 있다.

저승 문형노릇도 기쁘지 아니한가?²¹⁾
 도술천은 과연 청정하고 한가롭구나.
 영혼은 엽매임 싫어하여,
 허공에 마음대로 오고가네.
 고래 타고 사해에 조회하고,
 학을 타고 삼신산에 깃드네.
 인간세상 좁음을 굽어보노라니,

20) 필립 아리에스(Philippe Ariès), 고선일 옮김, 『죽음 앞의 인간(L'homme Devant la Mort)』, 새물결, 2004, 212~236·1065~1070쪽.

21) 修文은 修文郎을 말한다. 저승에서 문장의 저술을 담당한다는 관원을 일컫는 말이다. 晉의 蘇韶가 死後에 그의 從弟 蘇節 앞에 나타나, “지금 저승에는 顏淵과 卜商이 수문랑으로 재직하고 있다.”라고 말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송대 陸游의 <贈命周雲秀才> 시에 “地下不作修文郎, 天上亦爲京兆尹.”이란 구절이 있다.

죽기 전엔 어찌 그리 힘겨웠던가.
 修文不快活, 兜率果清閑.
 靈性厭拘管, 虛空任往還.
 跨鯨朝四海, 騎鶴暮三山.
 俯看塵寰窄, 死前何太艱.²²⁾

조선후기 자만시에는 대체로 사후세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편이다. 시인이 상정한 사후세계는 현실과 대비됨으로써, 현실의 누추함을 부각시킨다. 하지만, 이명오의 시에서 저승은 단순히 현실의 반면으로서의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첫 구절 저승의 문형노릇이 즐겁다는 말은 多層的 의미를 지고 있다. 표면적으로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한편으론 庶系로서 바랄 수 없던 문인으로서의 立身 욕망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욕망의 실현마저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는 뒤틀린 심리는, 엇매임을 싫어하여 허공을 마음껏 오간다는 표현과 함께 현실에서 그를 구속했던 상황들에 대한 불만을 암시한다. ‘인간세상의 협착함 塵寰窄’이란 바로 그것을 압축한 말일 것이다.²³⁾

이 시에선 또 고래와 학을 탄 자아상을 등장시켜 자아표현으로서의 성격도 분명히 보여준다. 앞선 시기 林悌(1549~1587)가 학을 탄 자아를 등장시키고, 趙任道(1585~1664)가 봉황으로 자신을 빗댄 것처럼,²⁴⁾ 이명오의 시 역시 ‘나의 죽음’을 상징화함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전에 온전히 대접받지 못한 자신의 처지와 대비되는 사후세계의 영예란 결국 부정한 현실에 대한 反語的 표현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 작품의 자아형상화는 이명오가 남긴 또 다른 시

22) 『泊翁詩鈔』, 卷六, <自挽> 其五, 112쪽.

23) 필자는 이명오의 시세계에서 庶系로서의 자의식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는지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4) 林悌, 『林白湖集』, 卷三, <自挽>, 韓國文集叢刊 58, 民族文化推進會, 1990, 288쪽, “江漢風流四十春, 清名贏得動時人. 如今鶴駕超塵網, 海上蟠桃子又新.”; 趙任道, 『澗松集』 卷二, <自輓>, 韓國文集叢刊 89, 民族文化推進會, 1992, 45쪽, “翔鳳亭中鳳不還, 飄然直上白雲間. 湖山自此無常主, 明月清風萬古閒.”; 앞의 논문, 384~390쪽.

와도 일정부분 관련이 있다. 그는 <悼鶴>이란 제목의 시 두 수를 남긴 바 있는데,²⁵⁾ 학에 대한 애도는 이 시와 연관시켜 볼 때 그 자신에 대한 애도라고도 볼 수 있다. 시인의 자의식과 현실이 가진 간극이란 측면에서 이 시의 비극성은 더욱 도드라지게 된다.

이상을 통해 이명오의 자만시가 가진 유형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假裝된 죽음’ 유형은 거짓 죽음의 서사가 매우 의도적이고 구체적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명오는 왜 거짓 죽음의 연기가 필요했던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창작의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찾아보기로 한다.

4. 창작의식: 고통의 기억

대체로 볼 때 자신의 죽음 뒤에 지어진 挽詩·祭文·墓誌銘·傳·畫像讚類의 문학은 타인의 몫이다. 그러나 自挽詩·自祭文·自撰墓誌銘·自傳·自撰畫像類 문학의 창작 의식은 이와 다르다. 시인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소유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삶을 산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삶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기나긴 여로라고 한다면, 그런 정체성은 자만시와 같은 자기표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를테면, 자만시는 이러한 자기인식을 재구성하고 세상에 각인시킬 수 있는 최선의 혹은 최후의 기회였던 셈이다.²⁶⁾

이명오가 세상에 각인시키고자 했던 자기인식은 무엇일까? 다음 시의 구절들을 살펴보자.

25) 『泊翁詩鈔』, 卷一, <悼鶴>, 22면, 其一 “里老不仁甚, 晨寒拔鬣毛. 未安養鴨棚, 可試割鷄刀. 華表魂應返, 孤山命未遭. 可贖幾凡鳥, 平林競噪號.” 其二, “不聞瘞死者, 何望放生之. 衰世少完物, 古人亦許悲. 閒雲殊不極, 明月更何爲. 全失亭臯趣, 淒然一賦詩.” 비슷한 시기 申緯의 작품 중에도 <悼鶴>이란 작품이 보인다. 이 시기 시인들에게 이런 주제의 시가 유행한 이유에 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26) 줄고, 「自挽詩의 詩의 系譜와 조전전기의 自挽詩」, 322쪽.

[1] 其五의 頷聯

인간세상 좁음을 굽어보노라니,
죽기 전엔 어찌 그리 힘겨웠던가.
俯看塵寰窄, 死前何太艱.

[2] 其十의 頷聯

天壽를 마치기까지 세상은 늘 어지럽고,
처음부터 끝까지 팔방이 어둡기만 하구나.
終季長擾擾, 到底八幽幽.

[3] 其十一의 頸聯

이 일 끝내 판가름하기 어려우니,
다음 생애라도 어찌 쉽게 바라라.
此事終難辦, 來生豈易期.

예시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시인은 세상의 험착함[1], 어지럽고 어두운 현실[2],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3] 등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 표현들은 모두 자만시의 관습적 틀(상장례) 사이사이에 배치되어, 시인의 자기인식들을 재구성하고 있다. 시인이 죽음이란 극한 상황의 假設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의식의 핵심은 역시 아버지 이봉환의 억울한 죽음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자신과 집안의 痛恨이 된 庚寅年(1770)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연루된 자식들이 겪은 고초, 그리고 伸冤을 위한 노력이 자신의 老境까지도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명오는 1786년부터 선친의 신원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는데, 정조는 이봉환의 신원을 약속하고 1797년 이명오에게 25결에 달하는 토지를 하사하 바도 있다. 하지만,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신원 약속은 미뤄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명오는 임금의 御駕를 가로막기도 하면서 그 억울함을 강력하게 호소하였다. 결국 선친의 복권은 1809년이 되어서야 金履度와 金祖淳 등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것이 시인 자신이 희망한 완전한 명예회복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에서 다음 생애도 바라기 어렵다고 한 것은 이점을 잘 보여준다.²⁷⁾ 이명오가 1830

년경 이 자만시편을 쓸 때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억울함이 남아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일에 대한 이명오의 내심이 다음 시에서 잘 드러난다.

어느 때에나 다시 나를 만날까,
친척들 함께 슬퍼하는구나.
남은 자취 꽃 아래서 찾고,
초췌한 얼굴 술 마시며 떠올리겠지.
무덤엔 한 서린 풀 맺히고,
음산한 비 내리니 선명한 무지개 뜨네.
만겁 경인년 아픔 비한다면,
곤궁 따위 어찌 근심거리랴.
何時復見我, 眷屬悵然同.
遺躅尋花下, 凋顏想酒中.
蓬科結恨草, 陰雨發雄虹.
萬劫庚寅痛, 寧愁一切窮.²⁸⁾

후일 삼대에 걸친 悲願이 된 경인년 이봉환의 옥사는 이명오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만겁 경인년 아픔 비한다면, 곤궁 따위 어찌 근심거리랴. 萬劫庚寅痛, 寧愁一切窮.”란 미련의 표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경인년의 참화는 만겁의 고통으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자만>에선 상징적 표현만으로 그치고 있지만, 관련 내용이 다른 시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1776년에 지은 550구의 장편고시 <漫述>(卷一, 17~20면)에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그 이후 집안이 겪은 고통을 매우 상세하게 읊고 있다.²⁹⁾ 그는 그 고통을 “뱃속에 수레바퀴가 움직이는 것 같은 腹裏車輪動” 지극한 슬픔이라고 썼다. 그는 자신이 “눈으로 본 目所到” 사실들을 이야기하겠다고 한 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집안에 닥친 비

27) 이현일, 「청년 이명오의 슬픔」, 『문헌과 해석』 제54호, 문헌과 해석사, 2011, 229쪽.

28) 『泊翁詩鈔』, 卷六, <自挽> 其四, 112쪽.

29) <漫述> 시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소개된 바 있다. 이현일, 앞의 글, 191~230쪽.

극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³⁰⁾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시의 전반부인 130구까지는 자신의 집안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게 된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내용에 따르면, 경인년의 상소는 다른 사람이 감히 이야기하지 못한 사도세자의 일을 언급하였는데, 아버지가 오로지 忠義를 담아 쓴 것이라고 하였다.³¹⁾ 이것이 결국 참화를 당하게 된 이유가 된다.

이어 시의 후반부까지 이명오 五兄弟가 아버지의 일에 연루되어 겪은 고초들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선친이 평소 사랑하던 막내는 겨우 열 살 남짓의 어린아이였는데 형들과 마찬가지로 투옥되어 고초를 겪었다고 하였다.³²⁾ 당시의 상황은 희망이라곤 갖기 어려운 암울함 그 자체였다. 滅門之禍를 걱정해 형제들끼리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한다고 서로 권면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끝내 서로 안부도 묻지 못한 채 각기 다른 장소에 유배되었는데, 이명오 자신은 康津縣으로 유배된다.³³⁾ 이명오는 유배지에서 홀로 남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도망을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³⁴⁾ 이명오의 형제들 역시 유배지에서 갖은 고초를 겪었는데, 어린 동생은 끼니도 챙기지 못할 정도였다고 했다.³⁵⁾

이때의 고통은 <만술> 시 전체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어휘가 ‘血’

30) 『泊翁詩鈔』, 卷一, <漫術>(丙申), 17~20쪽. 1~20구: “聖人雖在上, 君子有窮時. 李觀作是語, 古人亦許悲. 觀世驚齷齪, 觀我厭支離. 腹裏車輪動, 至悲說與誰. 哭當爲人怪, 笑當爲人癡. 筆墨心之餘, 粗可代言辭. 腸曲四照人, 玲瓏太無遮. 所以言出口, 粉飾不增加. 此事徵何所, 閱歷便咨嗟. 先言目所到, 請君靜無譁.”

31) 101~110구: “環顧無可語, 圖書屋數間. 寅季□□疏, 語及內家事. 人所不敢道, 一筆數百字. 忠義斷無他, 庶幾回天日. 急雷發無妄, 天地俱陷缺.”

32) 141~150구: “累累解枷鎖, 鬼形言可再. 稚弟僅十齡, 宛轉哭相對. 剃髮纔覆額, 先人所鍾愛. 寃極仆地哭, 骨寒肉猶顫. 同係十餘日, 出獄似初見.”

33) 151~160구: “握手爪痕透, 接面血痕濺. 俱言慎勿死, 抱頸盡情戀. 一門九人並, 刑吏數一遍. 已被鷄犬逐, 世世自隸賤. 拘束聽所之, 南荒各異縣.” 181~190구, “兩吏持關文, 恍似導靈幡. 押赴康津縣, 遠近那敢言. 驛卒本鐵腸, 鞭扑踵血奔. 欲步脚不隨, 況又霜雪繁. 路邊有植碑, 云是孝於親.”

34) 231-240구: “聞見只增慟, 逃避百無計. ... 永日腸百折, 長夜魂九逝. 夢亦窮人夢, 流淚盈枕際.”

35) 249~250구: “幼弟不糊口, 伶仃半衢路.”

이라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³⁶⁾ ‘血’이란 시어는 본래 시에서 잘 쓰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자극적 표현은 작시 상 禁忌視할 뿐 아니라 시를 읽는 사람에게도 좋은 느낌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明代 謝榛은 이를 사용하면 거칠고 저급한 시가 된다고 하였고,³⁷⁾ 조선후기 李瀾도 陰險怪澁한 표현을 써서는 안 됨을 지적하면서 그 예로 ‘血’, ‘骨(白骨)’이 들어간 시구를 든 바 있다.³⁸⁾ 그럼에도 이명오가 시에서 의도적으로 ‘血’자를 남발한 것은, 아버지의 사건에 연루되어 겪은 고통이 얼마나 사무친 것이었던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自挽> 其十一에서도 그는 아버지의 遺文을 편찬하는 마음을 “털을 뽑아 붓을 만들고, 흐르는 피로 먹을 대신한다. 拔毛爲不律, 灑血代隄隳.”고 표현한 바도 있다. 후일 자식과 조카들이 이명오 형제 앞에서 庚寅이란 두 글자를 입에 담을 수 없었다고(<祭仲父石間公文>)³⁹⁾ 한 데서도 드러나듯이, 그때의 사건은 이명오 당대는 물론 아들이만용 대까지 이어진 집안의 비극이었다.

이명오 형제는 결국 삼년 만에 解配되어 어머니와 감격적 해후를 하게 된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게 어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명오는 해배 후 아버지의 임종을 하지 못한 한을 되새기며, 伸冤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이런 사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서 일만 권이나 되던 집안의 장서들마저 상당수 散逸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를 이명오는 ‘書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권세가들이 빼앗아 가기도 하고, 市塵 상인들이 훔쳐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소중한 책이 찢어지기도 했고, 한

36) <漫述>(丙申) 중 ‘血’자 관련 표현, 137~138구: “仰天天何高, 血灑臍欲潰.”, 151~152구: “握手爪痕透, 接面血痕濺.”, 185~186구: “驛卒本鐵腸, 鞭扑踵血奔.”, 297~298구: “他鄉待家信, 只看血沾襟.”, 355~356구: “噴薄皆冤血, 較量幾斗濃.”

37) 謝榛, 『四溟詩話』 卷四, 周維德 集校, 『全明詩話』2, 濟南: 齊魯書社, 2005, 1358면, “詩中罕用血字, 用則流於粗惡. 李長吉「白虎行」云: 袞龍衣點荊卿血.”

38) 李瀾, 『星湖僿說』 卷二十八, 「詩文門」, 『국역 성호사설』 IX, 민족문화추진회, 1977, 11~12쪽.

39) 李晚用, 「祭仲父石間公文」, 『東樊集』 卷二, 韓國文集叢刊 303, 민족문화추진회, 2003, 581쪽. “每說我王考時事, 輒嗚悒不忍言, 家人子姪輩, 亦嘗聞其緒餘, 而傷痛在心, 未敢言庚寅二字於家君與公之前.”

푼의 책값도 쳐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는 飢寒에 지친 늙은 여종이 책에 손을 대기도 했는데, 書僮를 불러들여 한 짐 가득 책을 빼돌렸다고 쓰고 있다.⁴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명오는 책에 대한 관심을 <藏書>, <散書>, <借書>, <送書>, <看書>(이상 卷一, 13면) 등의 시로도 표현한 바 있다. 그는 세도 있는 자는 빈손으로도 얻는 것이 책이고, 또 바보 같은 놈은 푼 돈도 아까워하는 게 책이라고 했다. 그래서 책을 소유하기란 참으로 어렵고, 또 소유했다 하더라도 지키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⁴¹⁾ 이명오는 자만시에서도 자신의 書癖을 드러내고 있다. 其三에서 “세상일로 코밑수염 완전히 세었지만, 책을 볼 땐 눈은 절로 청안이 되었네. 閱世髭全白, 觀書眼自靑.”라고 하였고, 其九에선 “책은 똑똑한 아이에게 주겠네. 書籍付佳兒.”라고 하였다. 그런 그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藏書를 잃었을 때 느낀 상실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이명오가 여든이 넘은 나이에 자만시를 남긴 것은 단순히 남은 생을 정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고통의 기억을 세상에 분명히 각인시키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다. 其四에서 “어느 때에나 다시 나를 만날까하고, 가족들은 함께 슬퍼하네. 何時復見我, 眷屬悵然同.”라고 시작한 것이 “만겁 경인년 아픔 비한다면, 곤궁 따위 어찌 근심거리랴. 萬劫庚寅痛, 寧愁一切窮.”라고 마무리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일은 그 자신과 가족 공동체 모두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일이었기 때문이다. 자만시에서 ‘나의 죽음’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을 등장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명오 자만시의 창작의식에서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시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다는 데 있다. 다음 시

40) 451~460구: “何論外物假, 床架掃層層. 搶來皆勢途, 偷去半市塵. 缺裂不復惜, 所直輕一錢. 老婢亦犯手, 飢寒驅使然. 牆外引書僮, 荷擔赭兩肩.”

41) 이명오의 서책 애호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할 것. 안대회, 「서오생의 책사랑-장서가 이명오-」, 『천년 벗과의 대화』, 민음사, 2011, 95~100쪽.

를 살펴보기로 하자.

지가공 잊기 어렵고,
 한원옹 매번 생각나네.
 촉급한 소리 빈 골짜기에서 나오고,
 기이한 향기 바람 따라 풍겨오네.
 책 보실 땐 눈이 물처럼 맑고,
 술 드실 땐 기운이 무지개처럼 뻗어나네.
 금대는 손꼽히던 분이었는데,
 세상 떠나면 마침내 함께 만나겠지.
 難忘遲稼公, 每憶漢源翁.
 急響出空峽, 奇香送逆風.
 卷中眼似水, 盃底氣如虹.
 錦帶指先數, 終歸會合同.⁴²⁾

자만시의 마지막 수엔 보통 매장과 매장 이후의 일이 담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시는 首聯에서 두 사람을 거명하고 있다. 遲稼公과 漢源翁이 그들이다. 遲稼公은 洪鳳漢의 아들이자 惠慶宮 洪氏의 동생인 洪樂任(1741~1801)을 가리키고, 漢源翁은 당대의 천재 문인으로 평가받던 盧兢(1738~1790)을 말한다. 주지하는 것처럼 홍낙임은 풍산 홍씨가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인물이었지만 당쟁 과정에서 희생되었고, 이 일을 혜경궁 홍씨는 두고두고 한으로 여긴 바 있다. 노궁은 『東稗洛誦』의 편자로 알려진 盧命欽의 아들로 科策·科詩·科賦는 물론 古詩文에도 능했던 文士였다. 科場의 일에 연루되어 유배된 바 있고 불우하게 살다 죽었다.⁴³⁾ 노궁의 아버지 노명흠은 30대 이후 洪鳳漢家에서 평생 塾師 노릇을 했으며, 노궁 역시 이 집안사람들과 가까웠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홍낙임과 가까웠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이명오를 진정 인정해줬고 자신 역

42) 『泊翁詩鈔』, 卷六, <自挽> 其十二, 112쪽.

43) 李奎象, 『18세기 조선 인물지(并世才彥錄)』,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분과 옮김, 창작과 비평사, 1997, 100~101쪽·270쪽.

시 존경했던 선배 문인이었다.

이명오는 해배된 이후 줄곧 선친의 신원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했다. 길거리에 거적을 깔고 왕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수차례 탄원하다가 귀양을 가기도 했다.(『國朝人物志』) 이 과정에서 아버지 대부터 출입했던 洪鳳漢 집안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게 된다. 특히, 홍낙임은 洪鳳漢의 셋째 아들로, 아버지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은인 같은 인물이었다. 아버지 이봉환은 흥봉한 대에 이 집안에 출입했던 인연이 있기도 했다. 홍낙임은 樊川(東岡)詩社를 열어 30년간 文苑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명오 역시 詩社에 참여했다.⁴⁴⁾

하지만, 홍낙임은 신유박해 때 서학의 배후로 몰려 賜死되었고, 노궁 역시 불우하게 살다가 오래 전 세상을 뜨고 말았다. 이명오는 이들을 결코 잊을 수 없고, 또 매번 생각나는 인물이라 썼다. 아마도 그의 머릿속에는 홍낙임이 이끌던 詩社와 시사에서 함께 어울리던 노궁이 영영 잊혀지지 않는 대상이었던 듯하다. 노궁은 1790년에, 홍낙임은 1801년에 세상을 떠 이미 40여년이 지났음에도, 시인은 자신의 죽음을 선배들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일이라 규정하고 있다. 시인이 자신을 이들과 함께 세상에 각인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명오의 시집 중에는 두 사람을 그리워한 시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띈다.⁴⁵⁾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이명오 개인의 자만시에 그치지 않고, 먼저 세상을 뜬 홍낙임·노궁과의 정신적 연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들의 삶이 비극적이었던 만큼, 이명오 자신의 家禍와 함께 일종의 동병상련으로서 시대적 아픔을 노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이명오의 자만시 외에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시적 국면이다.

한 가지 첨언할 사항은 저승에서 함께 만날 또 다른 이로 錦帶를 꼽고

44) 김영진, 「조선후기 사대부의 야담 창작과 향유의 일양상」, 『어문논집』 제37집, 민족어문학회, 1998, 21~45쪽.

45) 『泊翁詩鈔』, 卷四, 57면, 「遲稼軒, 與盧漢源·洪晚香同賦」, 卷四, 63면, 「過樊里, 洪天賚世周, 話舊感懷, 遂走筆書此」, 卷四, 67면, 「過樊川」 등.

있다는 점이다. 錦帶는 바로 盧兢·沈翼雲과 함께 조선후기 삼대 천재로 불린 李家煥(1742~1801)이다. 이가환은 남인으로 신유박해 때 천주교도로 몰려 獄死하였다. 이가환은 심문과정에서 당색이 다른 홍낙임과의 교유관계를 추궁당한 바 있는데,⁴⁶⁾ 노공의 묘지명을 써주기도 했다.⁴⁷⁾ 이명오 역시 서인·노론계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지만, 色目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가환을 높이 평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요컨대 이명오의 정신적 연대는 당파적 틀을 넘어 인간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겠다. 자신의 사후 만날 인물로 홍낙임·노공과 함께 이가환을 지목한 것은 그런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5. 결론

시인이 자만시를 쓰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세상에 각인시키려는 욕구로부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만시에 그려진 나의 죽음이란 사실상 자아를 표현하는 일이며,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시인의 자의식과 긴밀하게 관련될 문제이다. 이명오 역시 <自挽> 十二首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통해 자신의 현실을 조명하고, 나의 죽음을 통해 내밀한 자의식을 세상에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명오의 <자만> 십이수는 자만시의 시적 전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고통의 기억을 세상에 각인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다. 假裝된 죽음의 서사를 통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庶系로서 온당하게 평가받지 못한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이 멀지 않은 老境에 이르러 그가 자만시를 쓴 이유는, 시적 재능을 통해 집안의 悲願을 세상

46) 『순조실록』 2권, 1년 2월 26日(壬申) 3번째 기사.

47) 李家煥, 『錦帶詩文鈔』 下, <盧漢源墓誌銘>, 韓國文集叢刊 255, 민족문화추진회, 2000, 433쪽.

에 알리기 위함이었다.⁴⁸⁾ 그 비원은 아들 이만용 대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 가까이 교유했던 인물들의 비극적 죽음을 자신의 죽음 안으로 끌어들이며 개인을 넘어 집단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른 자만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국면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명오의 작품이 갖는 자만시로서의 특성은 최장 연작시라는 점, 특정한 사건에 대한 기억을 위주로 작성되었다는 점, 앞서 세상을 뜬 인물들에 대한 정신적 연대를 자만시에 담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는 자만시를 남긴 주요 작가들이 그러하듯이 별도의 自傳的 작품을 남기고 있어, <자만> 십이수 이해를 돕고 있다. 일종의 참조자료를 남겨서 자만시가 온전히 세상에 이해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셈이다. 어떤 측면에서 그의 작품은 정약용의 <自撰墓誌銘>과도 닮아 있다.⁴⁹⁾ 양식과 내용은 다르지만, 정약용 역시 西學 문제로 인한 자신과 주변인들이 입은 고초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자기인식의 표현은 文學史的으로 작가가 세상에 각인하고 싶은 자신의 진실을 담는 방식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학의 계보는 기원을 중심으로 고정불변하는 체계가 아니라 항상 현재 시점에서 사후적으로 배열되고 구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명오의 <自挽> 十二首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만시의 시적 계보를 새롭게 구성해낸 특징적 작품으로 기억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명오의 <자만> 십이수로 인해 조선시대 자만시는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표현의 매체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48) 이현일은 이봉환 三代의 悲願이란 주제로 이 문제를 상세하게 검토한 바 있다. 이현일, 「李鳳煥 三代의 悲願」, 26~47쪽.

49)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一集 詩文集 第十六卷, <自撰墓誌銘> 壙中本, <自撰墓誌銘> 集中本, 韓國文集叢刊 281, 민족문화추진회, 2001, 339~348쪽.

참고문헌

- 金正喜, 『阮堂全集』, 韓國文集叢刊 301, 민족문화추진회, 2003, 180쪽.
- 李家煥, 『錦帶詩文鈔』, 韓國文集叢刊 255, 민족문화추진회, 2000, 433쪽.
- 李奎象, 『18세기 조선 인물지(并世才彦錄)』, 민족문화추진회, 1997, 97~99쪽·269~270쪽.
- 李晚用, 『東槿集』, 韓國文集叢刊 303, 민족문화추진회, 2003, 577쪽.
- 李明五, 『泊翁詩鈔』, 韓國文集叢刊 續102, 한국고전번역원, 2010, 1~178쪽.
- 李鳳煥, 『雨念齋詩文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 丁若鏞, 『與猶堂全書』, 韓國文集叢刊 281, 민족문화추진회, 2001, 339~348쪽.
- 陶淵明, 『陶淵明集箋注』, 袁行霈 箋注, 北京: 中華書局, 2003, 421~422쪽.
- 김경숙, 「조선후기 한시에 나타난 創新風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21집, 한국고전문학회, 2002, 35~67쪽.
- , 『조선후기 서얼문학 연구』, 소명출판, 2005, 1~527쪽.
- 김영진, 「조선후기 사대부의 야담 창작과 향유의 일양상」, 『어문논집』 제37집, 민족어문학회, 1998, 21~45쪽.
- , 「동변 이만용의 시문집의 이본에 대하여」, 『문헌과 해석』 제54호, 문헌과 해석사, 2011, 252~270쪽.
- 김용태, 「楞溪 尹定鉉의 문학활동」, 『한국한문학연구』 제30집, 한국한문학회, 2002, 435~469쪽.
- , 『19세기 조선 한시사의 탐색』, 돌베개, 2008, 1~351쪽.
- 신로사, 「金善臣의 生涯와 그의 著作에 관한 一考」, 『동방한문학』 제36

- 집, 동방한문학회, 2008, 129~155쪽.
- , 「辛未(1811) 通信使行과 문화교류에 관하여」, 『한문학보』 제23집, 우리한문학회, 2010, 469~500쪽.
- , 「이봉환-이명오 부자의 일본 사행에 관하여」, 『문헌과 해석』 제54호, 문헌과 해석사, 2011, 231~251쪽.
- 신익철, 「18세기 중반 椒林體 漢詩의 형성과 특징」, 『고전문학연구』, 제19집, 한국고전문학회, 2001, 35~65쪽.
- , 「李鳳煥의 椒林體와 「落花詩」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제24집, 한국한문학회, 1999, 215~243쪽.
- , 「이봉환의 생애와 꽃을 노래한 시 몇 수」, 『문헌과 해석』 제54호, 문헌과 해석사, 2011.
- 심경호, 「黨伐의 場에 핀 梅花」, 『한국 한시의 이해』, 태학사, 2000, 449~470쪽.
- 안대회, 「盧兢 小品文攷」, 『한문학보』 제6집, 우리한문학회, 2002, 117~143면
- , 「서얼시인의 계보와 시의 사적 전개」, 『문학과 사회집단』, 집문당, 1995, 263~288쪽.
- , 「서오생의 책사랑-장서가 이명오-」, 『천년 벗과의 대화』, 민음사, 2011, 95~100쪽.
- 이현일, 「李鳳煥 三代의 悲願」, 『문헌과 해석』 제20호, 문헌과 해석사, 2002.09, 26~47쪽.
- , 「泊翁 李明五 시 연구(1)-初期詩를 중심으로」, 『한국한시연구』 제19집, 한국한시학회, 2011.10, 83~118쪽.
- , 「청년 이명오의 슬픔」, 『문헌과 해석』 제54호, 문헌과 해석사, 2011, 191~230쪽.
- 임준철, 「自挽詩의 詩的 系譜와 조선전기의 自挽詩」, 『고전문학연구』 제31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319~356쪽.
- , 「조선시대 自挽詩의 類型的 特性」, 『어문연구』 제146호, 한국

- 어문교육연구회, 2010, 375~400쪽.
- 임형택, 「『東稗洛誦』 研究-야담의 기록화과정과 한문단편의 성립-」, 『한국한문학회연구』 제23집, 한국한문학회, 1999, 307~351쪽.
- 한영규, 「南秉哲 懷人詩 연구」, 『한문교육연구』 제31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431~467쪽.
- 한태문, 「〈雨念齋手書〉 所載 通信使行 관련 편지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57집, 한민족어문학회, 2010, 391~420쪽.
- 아리에스, 필립(Ariès, Philippe), 이종민 옮김, 『죽음의 역사 Essais sur l'histoire de la mort en Occident du Moyen Age a' nos jours』, 서울: 동문선, 1998, 1~280쪽.
- 아리에스, 필립(Ariès, Philippe), 고선일 옮김, 『죽음 앞의 인간 L'homme Devant la Mort』, 서울: 새물결, 2004, 1~1,120쪽.

투고일 : 2012년 1월 9일, 심사 : 2012년 1월 16일~ 2월 13일, 게재확정 : 2월 14일

<Abstract>

Imitated Death and a Painful Memory — Elegy for Myself Series of 12 Poems by Lee Myung-oh

Lim, Jun-chul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Elegy for Myself series of 12 poems by Lee Myung-oh(1750~1836).

Elegy for Myself successfully expresses the painful memory by effectively using the tradition of the self-elegy poetry. By using the narrative of imitated death, the poet tries to express his father's false execution as well as his own under-estimated talent. And he relates his death with other one's tragic death, by which he raises the question of group, not of individual. This is the unique part of Lee Myung-oh's self elegy.

Self elegy works by Lee Myung-oh have three characteristics. First, They are the longest self elegy poetry. Second, they successfully express painful memory. Third, they have spiritual feeling of solidarity with other dead people. And like other self elegy writers do, Lee also wrote another autobiographical work, which serves as a great reference for understanding the self elegy poetry.

Self elegy poetry by Lee should be known as unique works to construct a new history of self elegy poetry. And his poetry made self elegy works in Chosun one of much more various ways of expression.

Key words : Self-elegy poetry, Lee Myung-oh, Death, Memory, Typological Characteristics, Creative Consciousness